

여성은행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경태* · 장성실 · 이강숙** · 이연경 · 이동배

— Abstract —

Stress Relating Factors of Working Women in a Bank

Kyung-Tae Jung*, Seong-Sil Chang, Kang-Sook Lee**
Yeon-Kyeng Lee, Dong-Bae Lee

*Dep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Korea**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Taejon, Korea

We surveyed 343 female bank clerks to find out associations between stress and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general, menstruation and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Unmarried women composed the majority of younger, lower income and lower education groups than married did. They also showed higher, though not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psychosocial well being index(PWI) and the first three items of the stress survey. And married women scored slightly higher only in the fourth item of the stress survey.

Among the subgroups of married and unmarried women, many factors contributed to a higher stress score in two or more items of the stress survey; in unmarried women, lower education level, little physical exercise, and large family inhabitants, in contrast married women, higher monthly income and greater working hours were related to higher stress scores. According to the menstruation factors, subgroups with dysmenorrhea or irregular cycle and scanty bleeding volume in unmarried women and subgroups with dysmenorrhea in married women showed higher stress scores in PWI.

In married women, the proportion of those who have been pregnant was 77.2% and the proportion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spontaneous abortion was 24.1%. Those who have ever experienced two or more spontaneous abortion showed higher, 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PWI.

In conclusion, dysmenorrhea was associated with high stress score in two groups. And

the other factors related to higher score of PWI were different between unmarried and married women,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management plan for mental health promotion.

Key Words :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tress score, Menstruation factors, Reproductive factors

서 론

전전한 정신의 중요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한 연구는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Kahn 등(1964)은 미국인 남성의 66 %와 여성의 49 %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Langner(1962)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율이 조사인구의 약 31.2 %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1985년 18세 이상 미국인들의 42.6 %가 그 전 해에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의 장애를 경험했으며, 21 %는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고하였다(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0).

이와 같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증상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생과 상관이 높아서 오늘날 각종 질병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이명근 등, 1997), 예를 들어 고혈압, 두경부 통증, 경견완 질환, 월경불순, 요통, 천식, 심혈관계 질환, 면역질환, 소화기계질환, 불안 및 우울 질환, 상해, 폭력, 자살 등 많은 임상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차철환, 1993).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신체증상을 조사하여 건강자와 비건강자를 구분하려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정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미한 증상들을 느끼며, 원활히 사회생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반적인 건강상태나 일반적인 사회심리상태를 측정하여 질환 전단계의 증상들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예방의학회에서 스트레스에 일반건강측정표(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표준화된 설

문지로 제시하였으며(장세진, 1993), 그간 몇몇 연구를 통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 왔다(오수성 등 1995; 이채용과 이종영, 1996; 허성옥 등 1996; 이명근 등, 1997; 장세진 등, 1997).

또한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인과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도 개인에 따라 혹은 각각의 집단에 따라 다르다. 결국 각각의 집단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는 직무의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환경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집단 중 여성은 남성과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인 특성부터 주변 환경적인 영향까지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월경과 분만이며(김영래 등, 1997), 관련된 연구결과에는 VDT작업 여성근로자에서의 유산율 증가(이강숙 등, 1991), 근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저체중 출생(Homer 등, 1990; Brandt과 Nielsen, 1992)이나, 혹은 월경주기의 변화(Matteo, 1987; Stoney 등, 1990; Jayseelan과 Rao, 1995; Cooper 등, 1996) 및 자연유산율의 증가(Bryant와 Love, 1991) 등으로 직장여성의 스트레스가 여성 고유의 특성인 월경 및 분만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직장여성에서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은 그 관련요인으로 가사, 육아 및 직무라는 광범한 환경의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뿐 아니라, 직종별 혹은 동일 직장내 근로자의 스트레스 평가를 위하여서 필요한 규모가 큰 집단이 혼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규모 동질집단인 여성 은행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직업성 요인 및 생식기계 증상으로 임신, 월경, 분만 등에 관한 요인을 조사하여, 일반건강측정표를 통해 측정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인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한 가정에서 가사, 육아등의 다양한 역할상에 관련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혼 및 미혼여성에서의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비교하여, 직장여성의 정신보건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102개 지점을 가진 J은행의 여성근로자 453명이었다. 설문조사는 1993년 4월 6일-17일 동안 건강검진과 함께 수행되었으며, 설문 에 응한 근로자 399명(88.1 %)중 스트레스항목에 누락없이 응답한 343명(75.7 %)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2. 설문내용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연령, 신장, 혈압, 결혼상 태,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근무기간, 하 루 평균근무시간, 근무부서, 월평균수입 등의 직업 적 특성 및 4가지 항목의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 심리적 건강수준(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45개 문항(장세진, 1993)으로 구성 되어 있다.

3. 스트레스 평가

스트레스항목에 관하여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부 정적인 응답이 강한 경우를 3점 가장 긍정적인 경우 를 0점으로 처리하여 총합계(PWI)를 구하였고, 45 개 스트레스 문항중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자기신뢰 도에 관한 15개 항목의 합계(SS1), 우울에 관한 14 개 항목의 합계(SS2), 수면장애에 관한 8개 항목의 합계(SS3) 및 일반적 건강 및 생존에 관한 8개 항 목의 합계(SS4)로 구분하여 각각에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였으며, 결혼상태에 따라 스트레스의 양상 이 크게 다를 것을 감안하여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정도 평가 및 관련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참고로 각 스트레스 항목별 문항의 신뢰도를 검정하 고자 Cronbach α 를 구한 결과, PWI는 0.916, SS1는 0.847, SS2는 0.806, SS3는 0.749, SS4는 0.750로 양호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7.5를 사용하였으며, 결혼상태 에 따라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평균비교를 하였고, 기타 스트레 스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하였고 각 스트레스 항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것은 월경증상 및 분만특성에 관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학적, 직업적 요인에 관한 변수를 중심으로 유 의수준 0.15으로 유의한 변수를 찾고자 Stepwise regression을 한 후, 찾아진 변수에 대해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343명중 미혼은 185명(53.9 %)이었고 기혼은 158명(46.1 %)이었다. 미혼여성의 평균연령 은 24.9세로 기혼여성의 평균연령 30.9세보다 매우 낮았고, 이완기혈압은 두 군이 거의 대부분 정상범위 였으나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군에서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Table 1), 미혼여성의 71.4 %는 20대였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이 89.2 %이었고, 교육수준은 두 군 모두 고졸자가 대부분이었고, 수면시간은 두 군 모 두 95 % 이상이 모두 7시간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근무기간이나 월 평균 급여는 기혼여성에서 미혼 여 성의 경우보다 매우 많았다. 스트레스 점수를 전체 여성의 평균±표준편차인 22점과 51점을 기준으로 건강군, 경계성, 고위험성 스트레스군으로 나눈 결 과, 두 군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비만지수 는 양군모두에서 25kg/m²미만인 경우가 96.5-98.7 %로, 두 집단이 공히 비교적 마른 사람으로 구성되 어있음을 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두군에서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건강 및 생존항목(SS4)은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 총점 (PWI),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항목(SS1), 우울(SS2)과 수면장애 및 불안(SS3) 등의 스트레스 점수들은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보다 다소 높은 경 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두 군에서 연령별, 교육수준별, 근무기간별 스트 레스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marital status

	():%		
	Unmarried	Married	p-value
Age(years)			0.000
≤ 29	132(71.4)	17(10.8)	
30 - 39	53(28.6)	141(89.2)	
Education level			0.004
High school	129(69.7)	110(69.6)	
College	28(15.1)	9(5.7)	
Above university	28(15.1)	39(24.7)	
Duration(years)			0.000
≤ 1	34(18.4)	3(1.9)	
2 - 9	124(67.0)	35(22.2)	
10 -	27(14.6)	120(75.9)	
Income(10,000 won)			0.000
- 80	148(80.0)	56(35.4)	
81 -100	25(13.5)	51(32.3)	
101-	12(6.5)	51(32.3)	
Sleeping hours			0.370
7	177(97.3)	146(95.4)	
8	5(2.7)	7(4.6)	
Stress risk			0.597
Healthy	36(19.5)	26(16.1)	
Borderline	114(61.6)	108(66.7)	
High risk	35(18.9)	28(17.3)	
BMI(kg/m ²)			0.436
< 20	78(49.1)	68(47.2)	
20.0 - 24.9	79(49.7)	71(49.3)	
25.0 -	2(1.3)	5(3.5)	

BMI: Body mass index

Table 2. Stress scores of the subject by marital status(Mean±SD)

	Unmarried (N=185)	Married (N=158)	p-value
SS1	13.5±6.5	12.9±6.6	0.449
SS2	8.9±4.3	8.7±4.4	0.471
SS3	6.1±3.4	5.7±3.7	0.328
SS4	7.1±2.9	7.5±3.3	0.298
PWI	37.1±14.6	36.2±14.8	0.568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total score)

SS1: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SS2: Depression

SS3: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

SS4: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Table 3. Comparison of stress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married	Married	p-value*
Age(years)			
≤ 29	37.7±14.5	34.7±16.4	0.734
30-	35.5±14.8	36.3±14.7	
p-value†	0.360	0.668	
Education			0.950
High school.	38.0±14.7	35.6±15.2	
College above	35.0±14.2	37.5±14.1	
p-value†	0.206	0.473	
Work Duration(year)			0.713
≤ 1	34.5±12.6	44.3±29.8	
2-9	37.6±14.9	33.6±13.8	
10-	37.9±15.4	36.7±14.7	
p-value†	0.522	0.353	
Income(10,000 won)			0.709
< 80	37.2±14.2	33.5±13.0	
81-100	35.9±17.3	36.5±16.0	
101-	37.8±14.5	38.8±15.3	
p-value†	0.899	0.171	
Regular exercise			0.388
No	38.30±15.46	36.08±14.84	
Yes	33.96±11.63	34.72±15.68	
p-value†	0.069	0.629	
Sleeping hours			0.761
< 7	36.9±14.6	36.5±14.3	
8 -	37.7±14.7	35.5±16.2	
p-value†	0.746	0.700	
Drinking			0.761
No	37.18±14.95	36.00±15.37	
Yes	36.97±14.26	35.43±12.93	
p-value†	0.919	0.763	
Working hours/day			0.145
< 8	35.30±13.07	31.56±13.91	
8 - 10	36.97±14.26	35.83±14.10	
10 -	40.26±13.74	42.06±18.14	
p-value†	0.534	0.112	

p-value*: two-way ANOVA(each items and marital state)

p-value†: one-way ANOVA of each items in a group

혼 여성에서는 월평균 급여가 8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서 스트레스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운동을 하는 경우는 두 군 모두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혼여성

Table 4. Comparison of stress score by ther characteristics of menstruation

	N1	Unmarried	N2	Married	p-value*
Regularity					
Regular	106	34.52±14.05	120	35.49±14.52	0.331
Irregular	61	40.38±14.01	29	38.62±14.25	
p-value†		0.010		0.298	
Duration					
-4 days	7	32.43±14.16	9	31.78±16.80	0.673
5-7 days	58	38.07±15.05	82	34.41±14.46	
7- days	103	37.59±13.92	60	38.67±13.79	
p-value†		0.533		0.176	
Volume					
Small	12	46.33±10.31	13	43.38±11.62	0.053
Not large	120	36.41±4.88	100	35.24±14.26	
Large	22	39.41±4.21	20	33.80±14.37	
p-value†		0.067		0.118	
Dysmenorrhea					
None	18	36.56±13.13	32	30.87±12.73	0.028
Little pain	95	35.21±12.89	88	36.12±14.07	
Much pain	37	44.14±15.88	14	44.14±14.18	
p-value†		0.004		0.011	

p-value*: two-way ANOVA(each items and marietal state)

p-value†: one-way ANOVA of each items in a group

N₁:number of each subgroups in single women

N₂:number of each subgroups in married women

에서 강하였다. 하루 근무시간의 경우는 두 군에서 근무시간이 클수록 스트레스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기혼여성에서 강하였다(Table 3).

3. 월경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미혼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한 군이 월경이 규칙적인 군보다, 월경통이 심한 군이 월경통이 적은 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월경량이 적은 군이 다른 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월경통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생리특성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일 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월경기간의 경우 월경기간이 7일 이상으로 긴 경우가 스트레스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4. 분만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

임신회수 및 자연유산, 인공유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기혼여성 중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2명(78.2%)이었으며 임신경험자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PWI, SS1, SS2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연유산을 1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37명(24.1%)이었으며 2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1회이상 경험한 군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공유산을 1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45명(28.5%)이었으며, SS3는 인공유산을 2회 이상 한 경우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고, PWI 및 SS1, SS2, SS2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5. 제반 특성과 스트레스 점수와의 상관분석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에서 조사된 제반의 특성과 스트레스항목별 점수와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Table 6), 두 군 모두에서 스트레스 총점 및 4개의 스트레스 항목간에는 깊은 상관을 보였다(p<

Table 5. Comparison of stress score by the characteristics of pregnancy

	N	PWI	SS1	SS2	SS3	SS4
Frequency of pregnancy						
0	36	33.4±16.8	11.8±7.5	8.0±4.3	5.7±3.7	7.8±3.4
1	37	38.0±13.6	13.5±5.7	8.9±4.5	6.4±4.2	7.7±3.4
2	45	37.4±14.6	13.6±6.3	9.0±4.6	5.6±3.6	7.8±3.1
3 -	40	35.5±14.5	12.6±6.7	8.7±4.3	5.2±3.2	7.5±3.3
p- value	0.538	0.576	0.761	0.533	0.399	
Frequency of spontaneous abortion						
0	121	36.0±14.6	12.9±6.6	8.6±4.3	5.7±3.7	7.4±3.3
1	28	36.0±15.9	12.8±6.9	8.6±5.0	5.8±3.9	7.6±3.2
2 -	9	38.9±15.7	13.9±5.8	9.8±4.6	5.8±3.1	8.2±3.7
p- value	0.854	0.898	0.750	0.996	0.773	
Frequency of artificial abortion						
0	114	35.96±15.17	12.84±6.64	8.39±4.52	6.00±3.82	7.41±3.49
1	27	40.04±14.70	13.63±6.33	10.70±.30	5.74±3.39	8.22±2.86
2 -	17	31.47±11.59	12.35±6.69	7.41±3.02	3.71±2.39	6.94±2.82
p- value	0.119	0.797	0.023	0.055	0.402	
Child care						
Kindergarden	59	35.00±16.05	12.78±7.41	8.20±4.54	6.13±3.87	7.03±3.23
Family	99	36.59±14.13	13.01±6.03	8.97±4.36	5.45±3.54	7.78±3.36
p- value	0.650	0.832	0.295	0.261	0.175	
Number of children						
0	43	35.14±16.91	12.35±7.28	8.47±4.33	6.00±3.88	7.02±3.42
1	62	37.52±14.04	13.42±6.08	9.16±4.52	5.85±3.57	7.71±3.38
2 -	53	35.43±14.10	12.81±6.57	8.30±4.43	5.30±3.65	7.64±3.20
p- value	0.657	0.707	0.547	0.604	0.544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total score)

SS1: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SS2: Depression

SS3: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

SS4: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0.001). 미혼여성의 경우 동거가족수가 클수록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자기신뢰도 항목(SS1)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경통이 클수록 우울(SS2)이나 수면장애(SS3)에 관한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지수가 작을수록, 월경통이 클수록,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일반적 건강 및 생존(SS4)에 관한 스트레스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월경통이 클수록,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전체 항목의 스트레스(PWI)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에서는 월경통이 크고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에 관한 스트레스(SS1)가 크게 나타났으며, 월경통이 클수록 우울에 관한 스트레스(SS2)가 크고, 월경통이 클수록 하루

중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장애(SS3)와 스트레스 총점(PWI)가 컸다. 일반적 건강 및 생존에 관한 것(SS4)은 비만지수가 적을수록, 월경통이 클수록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미혼 여성에서는 월경통이 클수록,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총점 및 각 스트레스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기혼 여성에서는 월경통이 클수록,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의 스트레스항목에 세부적으로 관련된 요인은 미혼과 기혼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6. 제반 특성과 스트레스 점수와의 다변량분석

월경 및 분만특성을 제외하고 일반적 특성 및 직

Table 6. Correlation matrix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ress items in two groups

Group	SS2	SS3	SS4	PWI	DBP	BMI	EDU	MEVOL	PAIN	SBP	DU	AGE	FM	SLP	WORK	TIME
Unmarried																
SS1	.629**	.460**	.545**	.883**	-.126	-.148	-.065	-.028	.123	-.104	-.021	-.145	.175*	.088	.050	.046
SS2	.000	.504**	.453**	.819**	-.088	-.022	-.044*	-.085	.048**	-.055	.010	-.045	.0927	.118	.107	.133
SS3		.000	.565**	.732**	.022	-.049	-.184*	.004	.305**	.035	.046	-.039	.0947	-.032	.182	.103
SS4			.000	.741**	-.167*	-.219**	-.051	-.100	.282**	-.153	.134	.050	.154*	.105	.111	.102
PWI				.000	-.122	-.141	-.100	-.062	.209*	-.094	.030	-.082	.167*	.093	.134	.108
Married																
SS1	.573**	.336**	.512**	.838**	-.033	-.035	.016	-.135	.182*	-.065	.135	.187*	.0016	.021	.063	.137
SS2	.000	.516**	.495**	.832**	.054	.044	.010	-.140	.194*	-.018	-.009	-.009	-.062	.042	.037	.139
SS3		.000	.470**	.685**	-.021	-.007	.025	-.037	.231**	-.053	-.058	-.027	-.0286	-.128	-.073	.163*
SS4			.000	.747	-.105	-.175*	.084	-.115	.218*	-.135	-.011	-.029	.0039	.009	.066	.240**
PWI				.000	-.026	-.044	.039	-.149	.253**	-.072	.043	.068	-.0239	-.014	.039	.201*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total score)
 SS1: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SS2: Depression
 SS3: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
 SS4: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BMI: Body Mass Index

EDU: Education level
 MEVOL: Subjective estimation of menorrhoea
 PAIN: Menorrhagia
 DBP/SBP: Diastolic/Systolic blood pressure
 TIME: Working hours/day
 FM: Family inhabitants
 Work: house work hour

*: p<0.05

** : p<0.01

***: p<0.001

업적인 요인과 스트레스점수의 관련성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Table 7),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적거나 비만도가 작을수록 SS1 스트레스항목의 점수가 높고, 근무시간이 길거나 주당 운동을 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SS2스트레스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SS3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근무기간이 길거나 이완기혈압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낮을수록 SS4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또한, 비만도가 낮을수록 PWI가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월급여가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SS1의 스트레스점수가 높았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SS2의 점수가 높았다. 수면시간이 적으면 SS3의 스트레스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시간이 길수록, 비만도가 낮을수록 SS4스트레스점수가 높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월급여가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PWI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고 찰

은행원이라는 직업군의 특성은 일반대중에 대한 서비스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대개 미혼 시절 입사하여 일반행원으로 머물게 되고,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고위의 관리직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차지하는 율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대상중 기혼여성들은 이 직업군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장내 적응력이 큰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미혼여성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도 잘 해온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스트레스점수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기혼여성에서 미혼여성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미혼여성의 경우는 기혼여성집단보다 낮은 연령과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직업력, 저임금, 낮은 지위 등으로 연관되어 미혼여성군 내부에서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두 군의 스트레스정도는 매우 유사하였다. 이는 스트레

Table 7. Multivariate regression of related factors to stress

		Variable	β	S.E	prob T	prob>F	R-square
Unmarried	ss1	Age	-0.173	0.093	0.0641	0.026	0.060
		BMI	-0.427	0.223	0.059		
	ss2	Work time	0.482	0.241	0.047	0.019	0.066
		Exercise	-0.851	0.473	0.075		
	ss3	Education	-0.897	0.305	0.004	0.004	0.068
	ss4	Work duration	0.139	0.063	0.029	0.002	0.117
		DBP	-0.076	0.034	0.029		
		BMI	-0.313	0.123	0.012		
	PWI	BMI	-0.773	0.516	0.137	0.137	0.0079
Married	ss1	Monthly income	1.078	0.519	0.040	0.036	0.055
		Sleeping hours	-1.373	0.802	0.089		
	ss2	Work time	0.394	0.203	0.054	0.031	0.058
		Sleeping hours	-0.615	0.318	0.056		
	ss3	Sleeping hours	-0.689	0.416	0.100	0.100	0.023
	ss4	Working time	0.665	0.299	0.028	0.011	0.074
		BMI	-0.284	0.129	0.031		
	PWI	Working time	2.167	1.141	0.059	0.031	0.074
		Monthly income	1.695	1.161	0.147		
		Sleeping hours	-3.615	1.793	0.046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total score)

SS1: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SS2: Depression

BMI: Body mass index

SS3: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

SS4: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스 수준과 위험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미혼여성에게 있어서 우울 및 수면장애 스트레스 항목이 학력수준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미혼여성의 경우 동거가족수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항목, 일반적인 건강 및 생존 항목, 전체 스트레스 항목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Table 6),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기혼여성의 경우는 가족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혼여성의 경우는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결혼전 부모를 포함한 형제자매 등 가족부양의 의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동거가족이란 대개의 직업활동은 맞벌이의 형태를 띠므로 가족수에 대한 부담이 미혼여성보다 가볍게 분담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혼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높은 직책 및 보다 긴 근무기간이 스트레스점수의 감소와 관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집단에서는 두 군의 스트레스정도가 매우 유사

함을 감안할 때, 결혼이라는 요인 즉, 미혼여성에서는 없는 기혼여성의 가사 및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와는 상관없는 것이지, 계속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것이 상대적으로 가사나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특성의 집단이기 때문인지, 혹은 원래부터 너무 스트레스정도가 낮은 집단이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참고로 예방의학회의 표준화설문지에서 제시한 고위험집단인 PWI 63점 이상을 본 연구대상에 적용한 결과 단지 5 % 미만이 이 범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위험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미혼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작고 교육수준이 낮고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월경통이 클수록 비만지수가 작을수록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경우 월경통이 클수록 비만지수가 작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월급여가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작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 두 집단에서 각 스트레스에 상관을 보이는 요인에 차이를 보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비만지수와의 상관성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두 군 모두 낮은 비만 지수와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조사집단의 특성이 전체적인 연령이 낮고 직업의 성격상 대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차원의 업무로 인하여 입사시 부터 비만한 사람이 제외된 일종의 직업군 특성으로 인한 선별효과로도 볼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낮은 비만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Schenker 등(1997)은 여성 변호사에서 주당 근무시간증가에 따라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직업스트레스에 따른 자연유산의 교차비 증가에 근무시간이 강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종필 등(1997)의 결과에서도 PWI와 근무시간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조사결과 운동을 하는 군, 음주를 하는 군에서 적은 스트레스를 보였는데, 이는 운동이나 음주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하나의 대응책으로 사료되며, 운동을 하는 군에서 월경통이 적었다는 Hightower(1997)의 보고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도 월경통이 적은 군과, 운동을 하는 군의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경특성별 스트레스를 보면 월경이 불규칙한 군, 월경통이 심한 군, 월경양이 적은 군, 월경일이 길은 군(7일 이상)에서 높은 스트레스 점수의 경향을 보였으며 월경통의 경우 스트레스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이 있을 때 월경주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와 저체중이나 다이어트가 월경일을 늘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Harlow & Matanoski, 1991).

직업여성에 있어 직업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자연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의 증가를 보이는 보고(Homer et al, 1990)나 여성 비행사에서의 유산을 증가(Cone et al, 1998)등과는 달리, 본 조사의 결과는 자연유산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의 스트레스 정도는 1회 미만 경험한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 원인으로 우선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스트레스보다 이 집단의 스트레스는 비교적 낮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이 연구가 은행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직종의 여성 근로자의 스트레스 평가와 절대비교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대개의 단면연구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관련요인들간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은행원에서의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본 결과, 미혼 및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정도는 4개의 스트레스 항목 및 전체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혼 여성이 다소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두 군에서 공통적으로 생식기계 증상중 월경통의 정도와 스트레스 점수는 밀접한 관련을 보였으며(Table 4) 미혼여성의 경우는 월경기간, 월경량도 스트레스 점수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그외에는 각 스트레스 항목에 관련된 요인이 두 군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집단 공히 적절한 근무시간, 식이 및 운동습관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이외에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는 적절한 체형유지와 후학을 통한 교육 및 승진의 기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가 이들 집단에 스트레스 관리의 접근 방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적인 건강에 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은행원 34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직업적 및 생식기계 기능적 요인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중 미혼 여성은 기혼여성보다 연령층이 낮고, 월평균 급여도 낮았으며, 학력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일반적 건강과 생존에 관한 스트레스 항목의 경우는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반면, 전체 스트레스 총점과 다른 3개의 스트레스 항목은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보다 스트레스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미혼여성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가족수가 클수록 높은 스트레스점수와 관련을 보인 반면, 기혼여성에서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비만도가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여 두 군간의 스트레스 관련요인이 달랐다.

3. 생리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미혼여성에서는 월경통이 심한 경우,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기혼여성의 경우 월경통이 심한 경우가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월경량이 적은 경우가 스트레스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각 스트레스 항목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직업적 요인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 미혼여성에서는 연령, 비만지수, 근무시간, 교육수준, 근무기간 및 이완기혈압등의 요인이, 기혼여성에서는 월급여, 수면시간, 근무시간 및 비만지수가 한 항목 이상의 스트레스 점수와 관련되었고, 개개 항목에 유의한 요인은 기혼 및 미혼여성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기혼 및 미혼여성에서 월경통이 심한 경우는 스트레스와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는 불규칙한 월경주기, 월경량도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나 기혼여성에서는 기타 월경특성, 분만특성, 가사 및 육아에 대한 특성에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기타 일반적, 직업적 특성은 미혼 및 기혼여성에서 각각의 스트레스 항목에 관련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인용문헌

김영래, 남 민, 맹광호. 일부 생산직 근로자와 가정주부의 월경전기증후군 특성 비교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9(3):487-495.

김종렬, 엄상화, 전진호, 정수진, 이창희, 정귀원, 최순석, 배기택, 남성사무직 관리자의 생활습관, 스트레스수준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의학회지 1997;30(4):791-804

오수성, 이광섭, 손석준, 최진수, 이정애. 일반건강측정표를 이용한 일부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95;28(1):123-139.

이강숙, 홍윤철, 박정일, 맹광호. 임신중 VDT(Visual Display Terminals)작업과 자면유산. 대한산업의학회지 1991;3(2):209-215.

이명근, 이명선, 박경옥. 병원근무자들의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9(1):61-74.

이채용, 이종영. Psychosocial Wellbeing Index의 신뢰도 및 타당도. 1996;29(2):255-264.

장세진. 건강통계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스트레스. 서울: 대한예방의학회, 1993.

장세진, 차봉석, 고상백, 강명근, 고상열, 박종구.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1997;30(1):129-143.

차철환. 산업보건관리로서의 활동과 지침. 정신보건관리의 실제. 서울: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1993.

허성옥, 장성실, 구정완, 박정일.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를 이용한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들에서의 스트레스 평가. 예방의학회지 1996;29(3):609-616.

Brandt L. and Nielsen C. Job stress and Adverse Outcome of Pregnancy: A Causal Link or Recall Bias? Am J Epidemiol 1992;135(3):302-311.

Bryant HE., and Love EJ. Effect of Employment and Its Correlates on Spontaneous Abortion Risk. Soc Sci Med 1991;33(7):795-800.

Cone JE., Vaughan LM., Huets A., and Samuel SJ. Reproductive Health Outcomes Among Female Flight Attendants. JOEM 1998;40(3):210-216.

Cooper GS., Sandler DP., Whelan EA., and Smith KR. Association of Phys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with Menstrual Cycle Patterns in Women Age 29-31 years. Epidemiol 1996;7(6):624-628.

Harlow SD. and Matanoski GM. The Association between Weight, Physical Activity, and Stress and Variation in the Length of the Menstrual Cycle. Am J Epidemiol 1992;133(1):38-48.

Homer CJ, Scherman JA, Siegel E; Work related psychosocial stress and risk of preterm, low birthweight delivery. Am J Public Health 1990; 2:173-177.

Hightower M. Effect of exercise participation on menstrual pain and symptoms. Women Health 1997;26(4):15-27.

Jeyaseelan L, and Rao PS. Effect of Occupation on Menstrual Cycle length: Causal Model Hum Biol 1995;67(2):283-290.

Kahn R, et al. Organizational stress. New York, Wiley, 1964: 오수성, 이광섭, 손석준, 최진수, 이정애. 일반건강측정표를 이용한 일부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95;28(1):123-139.

Langner TS. A twenty-two item screening score of psychiatric symptoms indicating impairment. J Health Hum Behav, 1962;3:269-276: 오수성, 이광섭, 손석준, 최진수, 이정애. 일반건강측정표를 이용한 일부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95;28(1):123-139.

Matteo S.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Job Interdependency on Menstrual Cycle Length, Regularity and Synchrony. *Psychoneuroendocrinology*, 1987;12(6):467-476.

Shenker MB., Eaton M., Green R., and Sauels S. Self-reported Stress and Reproductive Health of Female Lawyers. *JOEM* 1997;39(6):556-568.

Stoney CM., Owens JF., Matthews KA., Caggiula

A. Influences of the Normal Menstrual Cycle on Physiologic Functioning During Behavioral Stress. *Psychophysiology* 1990;27(2):125-13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Healthy people 2000: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bjectiv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